



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한국 경영학계의 '대부'라는 것과, 산업정책연구원의 경영자 독서모임인 MBS(Management Book Society)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사실 '조동성'이란 이름이 가지는 권위는 학계와 재계를 아우르고도 남음이 있다. 경영 방식에 관한 그의 충고에 초연할 수 있는 한국의 CEO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스물아홉이란 나이로 최연소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정치, 경제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끊임 없이 내놓으며 책상 물림이 아닌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아왔다. 공익적 필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참여적' 성향 때문에 그의 24시간은 항상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 조 교수가 지난 7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제3기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평소 저작권 문화의 보급 및 확산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조 교수이기에 그의 이사장 취임으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경영인 리더십 지닌 '행동하는' 학자

### 한국복사전송권센터 제3기 이사장 취임 경영자 독서모임 'MBS' 11년째 운영

지적 재산권 보호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절실

대학생 김연호(가명) 씨는 학교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학위논문을 검색하고 적당한 논문을 찾아서 '원문보기'를 클릭했다. 몇 개의 논문을 읽고 주제에 맞는 자료들을 취합해 과제를 완성했다.

이것은 학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지적 재

산권 침해 사례다. 인터넷에 올라있거나, 도서관에 있는 어문 저작물은 사실 저작권자의 재산이지만 그것을 이용하거나 복사하는 데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이런 어문 저작물의 복사권과 온라인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0

년 설립된 기관이다. 조동성 교수의 이사장 취임과 센터측은 제3기 운영방침을 발표하고 복사, 전송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 역시 “저작권 문화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하겠다”라며 의욕이 대단하다.

“저작권자의 권익보호 및 분배를 증대하고 수입의 대를 통해 조기 재정의 자립을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성원의 성취의욕을 고취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당연시 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 최근 어문저작물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더 많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조 교수는 여론의 형성과 조직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일단 국내·외 저작권 신탁의 활성화로 이용자의 권익을 제공하고, 홍보·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저작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불법복제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의 강화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야 하죠. 무엇보다도 사회 문화적 캠페인을 통한 여론의 형성과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간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책 읽는 CEO 모임, '경영과 책'의 접목 시도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여가문화학회 회장, 코리아오토포럼 회장 등 조 교수의 감투는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 중 조 교수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은 경영자 독서 모임, 일명 MBS이다.

지금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만들어진 경영자 독서 모임이 많지만 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MBS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손길승 SK그룹 회장, 신평재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이사장, 홍성일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조성식 POSCO 부사장 등 독서광으로 소문난 CEO들이 모두 MBS를 거쳐갔다.

MBS는 조 교수가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1995년 만든 모임으로 1기 모임이 시작된 이후 이번으로 22기를 맞이한다. 매 기수마다 20권의 책을 골라 읽고 저자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토론 하는 형식



평소 '책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지론을 가진 조 교수

으로 진행된다. 초창기 3~5명의 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기수당 수백 명 규모를 자랑한다. 11년 전만 해도 '경영과 책'의 접목을 시도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CEO에 대한 조 교수의 생각은 남달랐다.

“우리나라의 CEO 만큼 많은 책을 읽는 이들도 드뭅니다. MBS에는 출석회원들 외에도 몇 백 명의 통신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강의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며 꾸준히 독서를 합니다. CEO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지적 욕구에 매달리는 이들이니까요.”

평소 '책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지론을 가진 조 교수다. MBS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말엔 우리나라 기업인의 문화적 마인드가 MBS를 통해 향상된다는 자부심이 물씬 배어있었다. 경영인의 리더십을 지닌 학자, 학자의 울퉁은 성품을 지닌 리더. 조 교수의 매력은 그 교차점에 존재했다. **이재**

취재·이주연 기자 | 사진·박신우 기자